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PRING
제63호

V-Log
K-ETA센터의 브이로그

Focus
사단법인 너머

Zoom in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인도 출신 니디 아그르왈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날의 신록과 따뜻한 기운이 마음까지 전해지는
4월입니다.

바쁘고 지친 하루 속에서도 가끔은 청명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변의 달콤한 꽃내음으로 일상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부는 1월 2일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창업이민
인재양성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정부 차원의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였고, 비자 심사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개소 15주년이 된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체류외국인 230만 시대를 맞아 체류민원 상담 외에도
생활 정보제공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왔고, 4월
1일부터는 편의성과 보안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국내 체류외국인의
민원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 책임있게 답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한
봄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Dear readers,

It is now April, when spring is in full swing – a season that
resumes her loveliness with fresh blossoms and greeneries.
Although your life can be routine and tiresome at some point, do
take this time of the year as a wonderful opportunity to refresh
yourself and feel and enjoy the lovely sunny season.

We also have some exciting news to share with you that are
geared towards improving our policies. We are now implementing
a variety of policies aimed at attracting talented foreign nationals
and addressing issues experienced by our industries. On the
second day of this year, we have fully implemented a fast-track
programme for talented foreign nationals to encourage them to
be permanent residents and naturalise to Korea. Additionally, we
have improved the 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OASIS) to encourage foreign entrepreneurs to come to
Korea and set up new businesses. On 6 January, governmental
level initiatives were announced to bring in foreign labourers
to work in the shipbuilding sector and we are concentrating
our capabilities to proactively respond to labour shortages by
drastically cutting down on visa processing time.

Marking its 15th anniversary,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is
expanding the type of services it offers to more than 2.3 million
foreign residents – ranging from consultations on visa issues
to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everyday lives. We are also
investing efforts to ensure foreign nationals’ life here in Korea
to be more convenient. One example is the introduction of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on 1 April. The new card has
incorporated better security features and user-friendly elements to
make the card a practical everyday tool for greater convenience.
Meanwhile, we are also preparing to establish a dedicated new
organisation solely in charge of immigration affairs and policies
in an effort to deal with imminent challenges, including a rapid
demographic shift in the countr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remains committed than ever
to implementing efficient and well-functioning immigration
policies aimed at address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a declining
population. We are also not sparing efforts to proactively
implement immigration policies contributing to national
economic growth as well as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
value of respect and co-existence between Koreans and non-
nationals is upheld.

In this beautiful new season, I wish all of you great happiness and
look forward to meeting you again in the next issue with more
great news. Thank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 공 생

앰퍼샌드(ampersand)라고도 하는 ‘&’는
‘그리고(and)’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꽃과 나비, 개미와 진딧물, 악어와 악어새처럼
모습은 달라도 서로 도우며 공생하는 개체를
연결 짓는 ‘and(&)’.

&가 있어 우리는 세상 모두가 동등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로 다른 생명체들의 공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봄날의 자연처럼

우리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CONTENTS

2023. SPRING / Vol. 63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3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특집:
‘공생’하며 이루는 조화

06

Interview

포기를 모르는 사업가, 니디의 무한도전
인도 출신 니디 아그르왈

10

Story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

여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KIS

14

Focus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사단법인 너머

18

Issue

편의성·활용성 높인 NEW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도입!

20

Zoom in

동북아의 관문을 지키며 외국인과 공존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24

V-Log

외국인의 신속·편리한 입국을 돕는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K-ETA센터
정은비 주무관의 24시간!

28

KIS News

함께



함께 만드는
‘공감’ 이야기

30

Memoirs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꿈
아이옌요 티티(나이지리아)

32

Proverb

알아두면 쓸모 있는
흥미로운 관용어 유래

34

Culture

공통의 언어로 나누는 대화

36

KIS-tube

미리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Letter for KIS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06



14



28



포기를 모르는 사업가, 니디의 무한도전

인도 출신 니디 아그르왈

니디 아그르왈은 사업가, 방송인, 강연자,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만 아는 상태로 처음 온 한국에서 그녀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달리는 중이다.



N i d h i A g r a w a l

맨땅에 헤딩으로 온 한국

니디 아그르왈(이하 니디)의 고향은 인도 중서부에 위치한 마하라슈트라주의 라투르라는 도시다. 한국에서 흔히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사회적 인식이 좋은 것처럼 인도에서는 회계사가 그런 직업 중 하나인데, 니디 역시 회계사인 아버지의 권유로 회계 공부를 했다.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다. 회계사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고 오자 집안이 뒤집어졌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고 묻는 부모님에게 그녀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

니디는 다른 나라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배우고 싶었다. 부모님은 친척들이 사는 미국으로 갈 것을 권했지만 도전 정신이 강한 그녀는 인도인이 많지 않은 나라에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끝아본 후보 가운데 눈에 들어온 곳이 한국이었다.

"인도에 비해 국토도 작고 인구수도 적은 나라인데 삼성, LG 같은

대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회사들은 어떻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까' 싶었고, 제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어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결심한 한국행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느니 해보고 후회하는 길을 택했다. 2015년 한국에 와서 한글을 배우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무수한 노력 끝에 지금은 방송에서 한국어로 하는 토크이나 사업 프레젠테이션도 능숙하게 해내지만 니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감은 바쁜 일상의 원천

니디는 연세대학교 MBA를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경영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업을 하려면 경험과 인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미국계 스타트업에 비즈니스 세일즈 매니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입사했다. 이후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에 인도 지사장으로 이직해 현지 직원 채용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모두 담당했다. 경영인으로서 지사를 꾸려가는 것도 보람 있었지만 니디가 원하는 것은 자신만의 사업이었다. '망하더라도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준비에 뛰어들었다.

“지금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인데 하나는 인도 차(茶)를 한국에 브랜드화하려고 해요. 예전에 커피를 하루 3잔씩 마셨는데, 차로 바꾸니 불면증과 건조함이 사라지더라고요. 요즘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리라 생각해요. 또 다른 사업은 미국인 친구 타일러 라쉬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 데요. 자신감을 기반으로 영어 실력을 쌓는 서비스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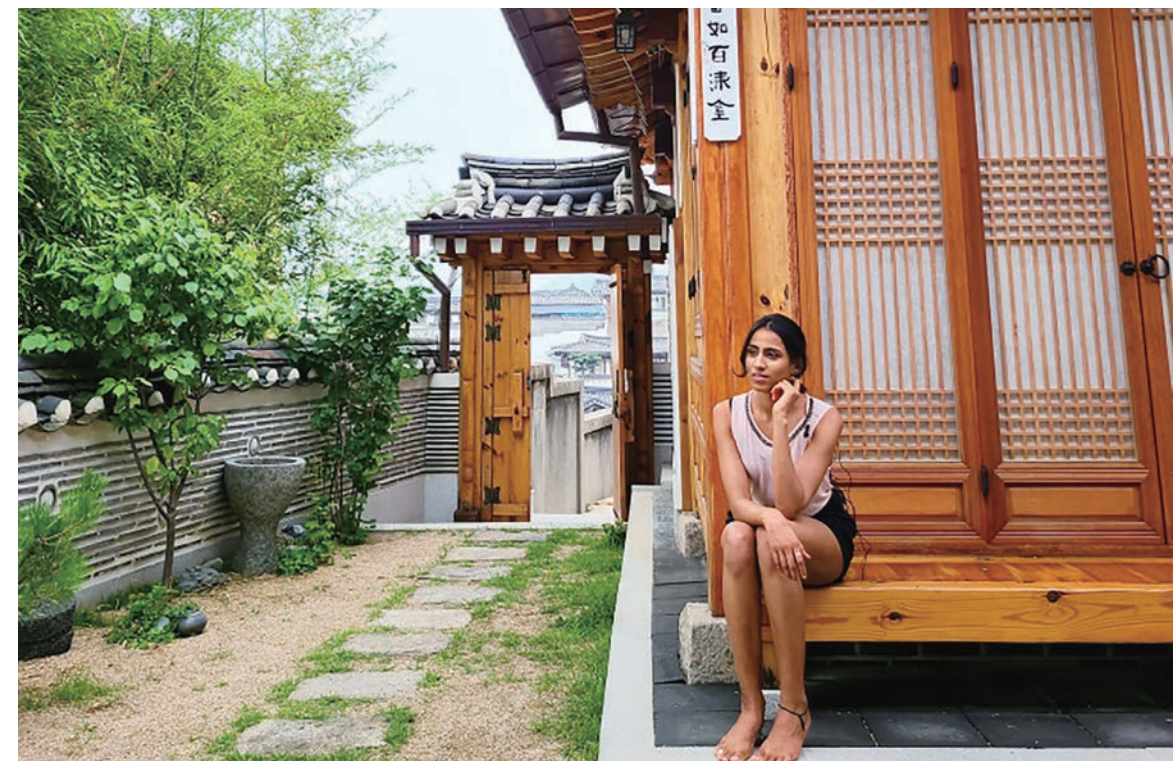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인도에 직접 팀원을 꾸려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인도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편 인도에 관한 책도 쓰고 있다. 인도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강연도 진행한다.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지만 그녀는 남다른 자신감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외국인이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주실래요?’라고 물어봐요. 모르면 당당하게 물어봐야죠.”

한국-인도의 서로 다른 기업 문화

한국과 인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생활 문화는 물론 기업 문화도 무척 다르다. 다양한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니디는 한국 기업 문화의 좋은 점으로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녀는 “마감 기한이 있으면 꼭 지키려 하고 내 회사인 것처럼 책임감을 갖고 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가 입장에서 한국 직원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장점이 많지만, 상사와 부하직원이 수평적 관계가 아니다 보니 솔직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적고 야근이 많아 워라밸 실현이 어려운 점은 아쉽다고 한다.

한국 진출을 원하는 인도 기업에는 어떤 팁을 줄 수 있을까. 니디는



“한국은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가 빠른 나라다. 트렌드를 파악하며 기업이나 개인만의 독특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전했다. 반대로 인도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한국 기업에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는 공용어가 22개에 달하는 만큼 각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니디는 “인도는 독특한 시장이라 다른 나라에서 통한 전략이 잘 통하지 않고 현지화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인도에서는 스토리보다 감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6개월은 투자한다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개척자를 꿈꾸다

많은 이들이 미디어에서 단편적으로 얻는 정보들로만 인도를 파악할 뿐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니디는 인도의 좋은 모습보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부각되는 점을 아쉬워했다. 그래서 인도의 선입견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나라가 크고 사람도 많아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인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즘 블로그에 ‘인도에 가기 전에 알면 좋은 것’ 같은 글을 쓰고 있어요. 인도인으로서 정확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요.” 올해로 한국생활 9년 차를 맞은 니디는 최근 타일러, 줄리안 등 외국 출신 연예인들이 설립한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다. 강연, 토론을 좋아하는 그녀는 새 소속사에서 한국에 흔치 않은 외국인 비즈니스 강연자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는 목표가 많은데 일단 사업가로서 성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사업이나 여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도 하고 싶고요.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저한테 ‘니디야, 절-절-포’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요. 절대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래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언젠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파이팅!”

우수한 외국인 인재 확보해 국가 경쟁력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의 연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세계 5위 수준으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산업 규모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공계 분야의 인력난과 신생아 출생률 급감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법무부는 국내에서 과학·기술 관련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국내 이공계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영주권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기존 소요 기간 6년→3년으로 단축)하여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도입 배경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AI(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등이 각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2022년 합계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공계 산업에서도 인력난이 가중되는 등 향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경제·기술·문화 선진화로 국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내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5년 96,357명에서 2021년 163,697명으로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지만¹⁾ 2017~2019년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2,767명 가운데 국내에 취업한 이는 42%로, 과반수가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취업했다.²⁾

이들이 한국을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영주권·국적 취득에 오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점이었다. 이로 인해 이공계의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요를 고려하여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영주권·국적 취득이 가능한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¹⁾ KOSIS 국가통계포털 <체류외국인통계> 유학생 관련 현황
²⁾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패스트트랙 주요 내용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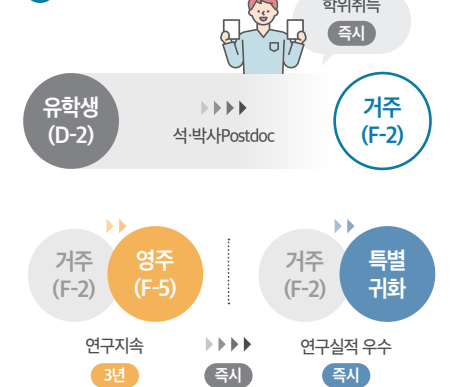
과학기술원(KAIST·DGIST·GIST·UNIST)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소속 석·박사

운영 방식



예비 우수인재 영주자격(F-5-16S), 우수인재 특별귀화 패스트트랙 신설

단계별 절차



※ 연구실적 우수 시 2단계에서 즉시 특별귀화 가능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패스트트랙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도입 전	도입 후
진행단계	4~5단계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 전문직 → 거주 → 영주 → 일반귀화	3단계 5개 이공계특성화기관 석·박사 → 거주 → 영주 또는 특별귀화
거주자격 (F-2-7S)	전문직(최소 3년)+거주(취업 필수) ※ 최소 6년 소요	학위취득 즉시 거주(총장 추천, 취업 불요) ※ 최소 3년 소요
영주자격 (F-5-16S)	거주(3년)+GNI 2배 소득요건 충족	거주(3년)+점수제 충족 ※ 지방 거주, 봉사 등 가점 추가 부여
귀화	일반귀화(외국국적 포기 필요) ※ 5년 영주자격 소지, 성년, 기본소양, 생계능력, 품행단정 등 요건 충족	우수인재 특별귀화(복수국적 유지) ※ 연구실적 우수자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귀화

패스트트랙이 도입됨에 따라 영주자격과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절차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또한 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취업에 대한 부담 없이 거주 비자를 허용해 외국인 우수인재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한다.

점수제 항목에는 기본 항목(학력, 연구경력, 연구실적)과

함께 가점 항목(한국어능력, 연간소득, 봉사, 추천, 지방(비수도권) 거주 등)이 포함된다. 지방 거주 항목의 경우 인구감소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 도입한 것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적으로 배점한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거주자격을 취득하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함께 거주자격이 부여되며, 영주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동일하게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일반적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지만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을 비롯해 우수한 외국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과 맞춤형 정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영주·귀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외국 인재의 정착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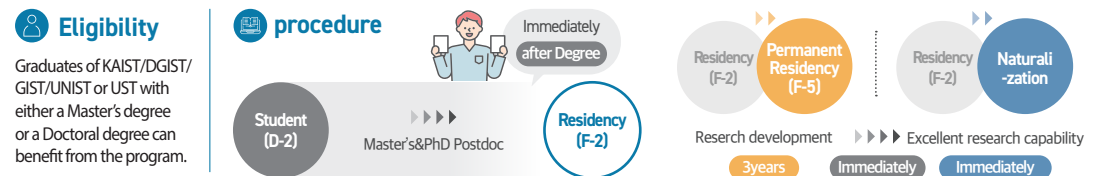
Attracting foreign talents to boost national competitiveness

A Fast Track Program for Global Tal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ew program aims to discover outstanding talent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provide them with expedited procedures for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It will reduce the necessary procedures from six years to three years. The fast track program is

designed for graduates who have obtained a Master's degree or a Doctoral degree from one of the five Korean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science or engineering.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program can benefit from expedited procedures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or Korean nationality, which can help them settle in Korea and make it their home.

Details of fast track permanent residency and naturalization program



※ Once graduates reach Stage 2 and obtain a F-2 status to reside in Korea and they have an impressive research record, they can apply for special naturalization right away. Through this type of naturalization, they can keep their original nationality and have dual nationality, but only if they promise not to use their rights associated with their original nationality while they're in Korea.

New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fast track program

	Before	After
Total number of steps	4~5 steps Acquisition of either a Master's or a Doctoral degree from an educational institution specializing in science or engineering · Employment as a professional · Obtaining a residential status · Obtaining permanent residence status · Regular naturalization	3 steps Acquisition of either a Master's or a Doctoral degree from one of the five educational institutions specializing in science or engineering · Obtaining a residential status ·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or applying for special naturalization
Requirement for obtaining residency (F-2-7S)	• Employment as a professional for at least three years • Residency in Korea while maintaining employment ※ At least six years is needed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A right to reside in Korea is granted immediately upon acquiring his/her academic degree A recommendation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r a proof of employment are not required ※ Approximately three years is required to obtain this status.
Requirement for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F-5-16S)	• Residency in Korea for at least three years • Ability to demonstrate salary level, which exceeds at least twice the national GNI	• Residency in Korea for at least three years • Acquisition of a passing mark under the points-based system ※ Extra points will be granted for applicants who are able to demonstrate a) residency outside Seoul and its vicinity and b) participation in volunteer work will allow for extra points.
Naturalization	Regular naturalization (This type of naturalization requires the applicant to nullify his/her original nationality) ※ Requirements for regular naturalization: a) At least five years of maintaining permanent residency, b) adult, c) basic knowledge as a Korean, d) basic requirements of decency and e) ability to demonstrate means to maintain life in Korea	Special naturalization for outstanding talent (This type of naturalization allows retainment of his/her original nationality) ※ Individuals with the capability to demonstrate outstanding track record in research may opt to be reviewed by the Nationality Review Committee to seek special naturalization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사단법인 너머

법무부는 전국 각지에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해 국내에 체류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동포들이 조상의 땅인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의 동포체류지원센터 가운데 경기 안산시에서 고려인 동포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사단법인 너머를 만나본다.



강제이주부터 귀국까지, 고려인의 160년

고려인은 1860년부터 1945년까지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인해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와 그 친족으로, 구소련 지역에 5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초창기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이들 고려인은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옮겨졌다. 추운 겨울과 굶주림, 고려말(한국어) 사용이 금지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려인들은 특유의 근면함과 높은 교육열로 성실하고 우수한 민족임을 입증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경제 위기를 겪은 고려인들은 또다시 유라시아 각지로 재이주를 하게 됐고, 2007년 중국과 고려인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와 같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고려인 동포들은 생계와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이유로 조상의 고향인 한국에 찾아오지만 언어 장벽과 체류 문제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사단법인 너머는 이렇듯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향상을 돕는 시민단체다. 2011년 고려인 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글 야학으로 출발한 사단법인 너머는 현재 성인, 아동을 위한 한국어 수업,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노무·법률 관련 상담, 생활 통번역 및 의료·장례 지원, 장학금 지원, 고려인 네트워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고려인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활동 등을 펼치며 국민들에게 고려인 동포를 알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쟁이 낳은 또 다른 시련

긴 세월 타지에 의한 이주로 시련을 겪었던 고려인 동포들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또 한 번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는 약 1,200명으로, 이들 중 대다수가 고려인 동포들이 모여 사는 안산시 선부동 땃골마을에 정착했다. 사단법인 너머는 한국적십자사와 협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동포들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나눔 행사를 개최해 쌀, 밀가루, 마스크 등 생필품도 제공한다. 3월 말 진행된 나눔 행사에 총 100여 가구의 우크라이나 동포가 참석해 생필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각종 고충과 생활 정보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 했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답답해했다. 통역이 가능한 인원이 많지 않은 탓이었다. 사단법인 너머를 운영하는 김영숙 상임이사는 “급하게 피난을 온 분들이라 언어 문제로 인해 서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안타까워하며 “상담이 가능한 전담 인력이라도 지원된다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해 국내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들은 언어와



체류자격 등의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숙 상임이사는 “전쟁 피난민들이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 체류 자격이 안정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쟁 직후인 작년 3월 주변국에 피난 중인 우크라이나 동포의 비자발급서류를 면제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어 단기비자로 입국한 동포들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 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했고,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외동포는 소중한 민족이자 자산”

너머의 모체인 한글 야학을 운영하던 김영숙 상임이사는 국내에 있는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언어 문제로 인해 다양한 고충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생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일터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겪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들을 돕고자 몇몇 사람들과 함께 시작했던 사단법인 너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월 진행된 ‘경계를 넘는 동행, 고려인 너머 10년’ 기념행사는 사단법인 너머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회원, 후원자, 봉사자, 고려인 동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10년간 물심양면으로 고려인들을 도운 김영숙 상임이사는 그 간 사단법인 너머를 스쳐 간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떠오른

다고 했다. 전쟁 전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밀 농사를 지었지만 현재는 나눔 행사에서 밀가루를 배급받고 있는 동포, 이곳에서의 생계가 막막해 다시 전쟁터 한복판으로 돌아간 동포, 일하러 간 부모님 대신 학교에도 가지 않고 어린 동생을 돌보는 청소년 동포 등.

김영숙 상임이사는 막막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고려인 동포들의 처지가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느낀다. 최근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가 우크라이나 동포를 돕고 싶다며 직접 찾아와 기부금을 건넸다고 한다. 이렇듯 작은 도움과 관심이 사단법인 너머와 같은 동포체류지원센터에는 큰 힘이 된다. 김영숙 상임이사는 “재외동포들은 우리와 뿌리가 같은 소중한 민족이자 자산”이라며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우면서 든든한 한민족 네트워크를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너머

김영숙 상임이사

“재외동포들은
우리과 뿌리가 같은
소중한 민족이자
자산”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란?

법무부는 '08년부터 안산, 광주 등 동포가 밀집한 지역의 비영리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체류상담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센터명	주소	연락처	운영시간
경상북도 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북 경주시 금성로 369, 2층	054-742-4336 gkc365@naver.com	월~금 (09:00~18:00)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28번길 35	062-961-1925	월~금 (09:00~18:00)
사단법인 너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6길 37	031-493-7056 jamir0513@daum.net	월~금(10:00~20:00) 일(10:00~17:00)
사단법인 다문화마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65, 3층	031-495-2288 5663004@hanmail.ne	화~일 (09:00~18:00)
대전다문화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0	042-543-1191	월~토 (09:00~18:00)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02-2229-4900 hotline@swsgc.co.kr	일~금 (09:00~18:00)
초록별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7길 4-2, 401호	041-357-7194 saraah67kr@naver.com	화~일 (10:00~17:00)
한국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영진오피스 B동 1층	02-6900-8000 1644-0644+4(중국어) info@migrantok.org	일~금 (09:00~18:00)
한민족연합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19길 14	02-2676-6966 hmzmedia@naver.com https://hmzkorean.korean.net	월~금 (09:00~18:00) 주말 (문화·체육활동)
한중교류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8길 15-3 5층	02-522-7411 kcn2000@hanmail.net	월~금 (09:00~18:00)
사단법인 한중사랑교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05 상가동 B201	02-837-9296 shu1972@hotmail.com	화~일 (08:30~18:00)



편의성·활용성 높은 NEW 디자인 외국인등록증 도입!

A Residence Card adopting new design and features is now issued to make expats' life easier

01 신형 외국인등록증 도입 배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이 4월 1일부터 발급됐다.

2011년 5월부터 발급되어온 기존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사진이 흑백이고 크기가 작아 본인 확인이 어렵고, 외국인등록증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02 외국인등록증, 어떻게 바뀌었을까?



도입 전

도입 후

본인확인 용이

- 사진 컬러 인쇄 및 크기 확대(35%)

주민등록증과 통일성 확보

- 성별 표기 항목 생략(외국인등록번호로 구분 가능)
※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중 7번째 숫자가 5·7은 남성, 6·8은 여성
- 사진 위치 좌→우 변경

활용도 제고

- QR코드 추가
(외국인등록증 수록 정보 기계 판독 가능)



03 사용 중인 외국인등록증, 꼭 바꿔야 할까?

기존에 발급받은 구형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신형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구형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수수료(3만 원)를 납부 후 재발급받을 수 있다.

01 Why did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 to adopt new designs?

As of April 1, long-term foreign nationals in Korea will receive a newly designed Residence Card, a Permanent Resident Card, or an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depending on their status. Due to negative feedback received regarding the former design, which had been in use since May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adopt new designs. The printed photo in the former design was in black and white and considered too small, making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cardholder. In contrast, ID cards issued to Korean nationals have a much larger photograph printed on them to clearly identify the cardhol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design a new residence card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for improvement. This improved design will help make their everyday lives much easier.

02 What new features have been added?



Before

After

Larger photograph easier for personal identification

- Full-color photograph of the cardholder, which will be 35% larger than the photo printed on older cards

Type of printed information now in sync with information on Korean ID cards

- Removal of the gender section, which was previously a required piece of information on older cards
※ Gender can now be indirectly identified through the seventh

digit of the cardholder's 13-digit registration number. Specifically, a 5 or 7 indicates male, while a 6 or 8 indicates female.

- The photo will be repositioned from the left side to the right side.

Additional features for more convenience

- The redesigned card includes a QR code that enables a machine to read its information.

03 Do older residence cards need replacing?

Your older card remains valid until you apply for a replacement card due to loss and change of visa status. If you simply prefer the new designs and choose to have your current card replaced with the newly designed one, your existing card must be returned and a fee of 30,000 Korean won will be charged for card replacement.



동북아의 관문을 지키며 외국인과 공존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국제공항과 항만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에는 취업, 결혼 이민, 유학, 단기 방문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다. 관내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는 물론 인천항의 국경 관리까지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찾아간다.

17만 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다



인천광역시에는 등록외국인 17만 6천여 명(2022년 12월 기준, 거소신고자 포함)의 출입국 행정 업무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하 인천청)이 있다. 111명의 직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인천시 전체와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의 체류 관련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인천항 출입국심사, 우수 인재 유치, 사증 발급, 국적, 난민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보호, 이민통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4월에는 감시정 초지진호를 도입해 인천항의 국경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농·어촌 도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어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이 매우 다양하며, 그 수도 꾸준히 늘어나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제한됐던 시기를 제외하고 등록외국인이 매년 약 1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관할 지역이 넓고 다양한 업무를 아우르는 만큼 인천청의 방문객 수는 하루 평균 1천 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하는 1층 민원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입구 혼잡도가 높아 그간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최근 시설 재정비를 통해 새롭게 단장을 마쳤다. 인천청 관할인 김포다문화이주플러스센터 또한 방문자의 편의를 고려해 올해 대기 공간을 확장했다. 매일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인천청이지만 직원들은 항상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친절함의 응대와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기반으로 업무에 응하고 있다.



공존과 화합을 위해 도약하는 인천청



인천청은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미얀마 재정착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를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멘토링제를 운영해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대학 진학을 꿈꾸는 난민에게는 사회통합협의회의 지원을 통해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인천청 직원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인천청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은 직원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불우이웃을 돕는 자제적인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암 투병을 하며 홀로 자녀를 키우던 외국인 여성이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직원 수가 많은 만큼 단합과 친화력을 다지기 위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서로를 응원하는 글귀를 작성해 벽에 걸어두고, 식사 시간에 신청곡을 받아 틀어주는 등



소소하지만 힘이 되는 이벤트들이 직원들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작은 활력을 얻고 업무에 대한 열의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듯 인천청은 국민과 외국인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리과 최재아 주무관은 “국익과 인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엄정한 체류 관리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신속·정확·친절한 출입국심사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재정착 난민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국내 정착도 꾸준히 지원해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더욱 분주해질 인천항



지난 3월 19일, 한동안 휴업 상태였던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승객 544명과 승무원 370여 명이 탑승한 4만 3천 톤급 크루즈 유로파(EUROPA) 2호가 인천을 찾은 것이다. 인천에 크루즈가 입항한 것은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다.

이날 인천청 심사와 직원 10여 명이 크루즈 승객들의 출입국심사를 진행했다. 인천청 심사과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각종 무역 선박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국민·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크루즈 운항 중단이 오래되어 업무가 익숙지 않다는 걱정도 잠시, 심사와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관계기관 협의와 리허설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날 차질 없이 출입국심사를 마쳤다.

인천항에서는 간만의 크루즈 입항을 기념해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크루즈 선장과 선사 관계자에게 입항을 축하하는 기념패를 전달했고, 승객들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 전통 의상 체험,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 등도 진행됐다. 배에서 가장 먼저 하선한 승객에게는 꽃목걸이를 걸어주기도 했다. 이들은 관광 버스를 타고 서울과 인천 등 주변 관광지를 둘러봤다.

올해 인천항에는 총 12척 1만 8천여 명 규모의 크루즈 승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청 직원들은 “오랜만에 크루즈 입항이 재개되어 저희 직원들도 반가운 마음”이라며 “인천항을 방문하는 승객들이 한국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바빠진 인천항의 출입국 안전을 책임질 인천청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Mini INTERVIEW

“신속·정확·친절로 맞이하겠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규홍 청장

인천청은 인천시와 김포, 부천 약 17만 명의 외국인 체류관리를 비롯해 재정착 난민 등에 대한 정책지원 업무, 인천항 출입국심사, 불법체류인의 단속 및 강제 퇴거 등 출입국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청 직원들이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외교 최일선의 무대에서 있다는 각오로 따뜻하고 친절하게 외국인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국제여객선 운항도 재개된 현재 저희 인천청은 신속, 정확, 친절을 모토로 국민과 외국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천청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근 핫플레이스

개항로

최근 개항로 쓰리재 골목 일대에 개항로를 살리기 위한 ‘개항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맛집이 많은 곳입니다. 그중에서도 브라운핸즈 개항로점을 추천합니다. 프랜차이즈지만 커피가 맛있고 옛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독특합니다.

- 박병수(사법과) -

중구청

인천 중구청 근처에 옛 일본식 건축물이 많아 독특하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자주 등장한 자유공원도 있어 구경하시기 좋습니다. 특히 봄에 가시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데이트 명소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 주재범(조사과) -

차이나타운·인천청

인천 명소 하면 역시 차이나타운이죠. 연경의 하얀 짜장면을 꼭 드셔보세요. 인천청 구내식당도 최근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맛집인데요. 새로 오신 영양사님이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만들어주셔서 매번 점심식사가 기대됩니다.

- 박소희(관리과) -

자유공원

동인천에 있는 ‘물고기’라는 횃집이 분위기가 좋고 숙성회가 특히 맛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오랜만에 자유공원에서 벚꽃축제가 열렸는데 무척 예쁘거든요. 인천 토박이로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 최소리(체류과) -



V-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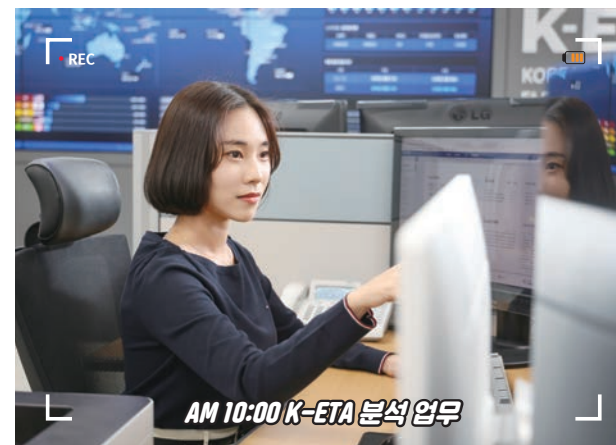
외국인의 신속·편리한
입국을 돕는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K-ETA센터 정은비 주무관의 24시간!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증면제 국가(67개국) 및 무사증 허용 국가(45개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입국해서는 안 되는 외국인을 비행기 탑승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K-ETA의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정은비 주무관이 김포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K-ETA센터의 하루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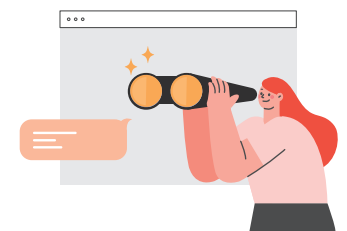


저희 K-ETA센터는 센터장님과 총괄팀, 분석1·2·3팀, 분석지원팀, 외국 어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석2팀 소속으로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체계로 근무합니다. K-ETA센터가 위치한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M 09:00 인수인계 및 회의

출근과 동시에 인수인계 사항에 대한 간략한 팀 회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팀에는 후배들을 위해 수평적인 근무환경을 추구하는 두 분의 계장님과 열정 가득한 동료 반장님까지 총 네 명이 함께 근무합니다. 좋은 팀원분들 덕분에 어려운 업무와 쉽지 않은 야간 근무를 잘 버티며 일하고 있습니다.



AM 10:00 K-ETA 분석 업무

제가 맡은 업무는 K-ETA 분석이지만, 전 세계 항공사에서 오는 문의사항과 외국어상담원을 통해 들어오는 문의사항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K-ETA란 대한민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기 위한 사전 허가 절차로서 신청인이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차단하고, 관광객 등 선량한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M 12:00 점심식사 및 휴식

PM 12:00

점심식사 및 휴식

바빴던 오전 업무를 마치고 식사할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이나 근처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 예쁘게 꾸며진 김포공항을 거닐며 산책도 하는데요. 최근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PM 05:00

꼼꼼하고 분별력 있게 분석!

K-ETA 분석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국적, 연령, 직업을 가진 외국인을 심사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느낍니다. 저희 분석관들은 활짝 열리지도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문을 마음속에 지니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외국인에게는 유연하면서 견고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PM 05:00 꼼꼼하고 분별력 있게 분석!

AM 01:00

새벽에도 열심히

최근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면서 K-ETA 신청 건수가 일 평균 약 1만 6천~2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 심사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거친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류되는 건들은 직접 수동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피곤한 새벽에는 팀원끼리 돌아가며 잠깐씩 휴식을 취한 후 더욱 꼼꼼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AM 01:00 새벽에도 열심히

AM 08:00

일일 통계 작성 및 보고

퇴근 1시간 전 일일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 센터장님께 보고드리면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약 2년간 K-ETA 분석 업무를 해오면서 다양한 일화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미국, 카자흐스탄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하는 행사를 앞두고 참석자들의 K-ETA 신청 건을 신속히 처리해 그분들이 일정에 맞춰 무사히 입국하셨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AM 08:00 일일통계 작성 및 보고

AM 09:00

아침 햇살을 받으며 퇴근

길었던 24시간 근무가 끝나고 드디어 퇴근합니다. 휴일에는 체력과 외국어 실력 증진을 위해 운동과 자기계발을 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선량한 외국인 입국자의 편의 증진과 국익 위해자의 입국 차단이라는 K-ETA의 기본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AM 09:00 아침 햇살을 받으며 퇴근

“활짝 열리지도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문을 마음속에 지닌 채 임하고 있습니다.”

정은비 주무관

“출입국 편의와 국경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 4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K-ETA가 면제됩니다. 더욱 심층적인 K-ETA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에 찾아올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철저한 국경관리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pring Vol.63



한동훈 장관, 유럽 3개국에서 이민정책 협력 체계 구축 논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월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방문해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들과 만나 이민정책과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유럽 3개국 방문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준비를 앞두고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위해 원활한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고자 추진됐다.

프랑스에서는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한편,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민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안전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민정책 경험 및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향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독일을 방문해 연방내무부 차관과 함께 양국의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이민정책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향후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기 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연령 확대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간 어린이를 대동한 장기 체류외국인의 경우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되어 불편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위와 같이 확대했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국 18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여권을 소지하고 방문해 사전등록해야 하며, 14세 미만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난민심사 공정성·전문성 강화 위한 난민전문통역인 위촉

법무부는 지난 1월 11일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 난민 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 관련 필수 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3년간 난민면접 통역 업무를 담당한다. 법무부는 난민 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난민전문통역인 160명을 위촉한 데 이어 올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난민정책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전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라며 “308명의 전문통역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난민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 발표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신속 심사제도, 기업별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비율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조선분야 별도 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해소방안’을 1월 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비자발급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지원인력(20명)을 지방 출입국사무소(5곳)에 파견하여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내로 단축하고 3월 24일 기준 총 3,213명에 대한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20개 기업)와 서로 연계시키는 행사로 기획됐으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별로 부스를 마련해 외국인 유학생과 일대일 현장 채용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어 구사 능력과 높은 한국사회 적응력을 보유한 외국인 유학생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와 직접 소통함으로써 추후 채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한	국	에	서	찾	은
---	---	---	---	---	---

새	로	운	꿈
---	---	---	---



글 아이엔요 티티

내 꿈은 IT 글로벌 대기업에서 3~5년 정도 일하다가 고향에 있는 지사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 노래도 친구들보다 잘 불렀기 때문이었다.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가장 어려운 게 언어였다.

2014년에 GKS 장학사업(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왔다. 첫 1년 동안은 어학당에 다녔는데 많이 힘들었다. 레벨 테스트 후 중급반에 들어갔고 2개월도 안 돼서 고급반으로 올라갔는데도 한국어로 말할 수가 없었다. 겉으로는 어학당에서 배운

언어와 실제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학당에서는 존댓말을 배우는데 밖에서는 반말을 쓰니 헷갈리기 때문이었다. 실수할까봐 부끄러워서 말하기와 쓰기 배우는 걸 잠깐 포기하기도 했다. 어학당이 부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친절한 부산 사람들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어학당을 수료한 후 서울에 올라와 대학원에 입학했다.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라서 한국어 실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실에 오니 내가 유일한 외국인이라 한국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쓰기는 더 어려웠다. 연구실 제안서와 보고서를 한국어로 써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TOPIK(한국어능력시험으로 6급이 가장 고급) 5급을 땀지만 조사 이·가, 은·는 차이도 잘 모르는 정도였다. 미디어로 한국어를 처음 배워서 문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졸업하기 전에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말하기와 쓰기를 배우려고 어학당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원하는 어학당을 찾을 수 없어서 생각해낸 다른 방법은 컴퓨터학원에 등록하는 것이었다. 컴퓨터공학 석사인데 컴퓨터학원에 다녀야 한다니, 웃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동료들이 배려를 많이 해줘서 고맙기도 한 반면 한국에서의 미래가 더 불안해지기도 했다.

컴퓨터학원에 같이 다닌 학생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을 처음 만난 친구들이었다. 그래서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 컴퓨터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내가 이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라 스터디 모임에서는 내가 친구들을 가르쳐줬다. 새로운 친구들에게 한국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다.

아이엔요 티티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로' 활동해 2022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됐다.

박사과정 수료 후 팬데믹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전공과 크게 관련이 없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문제가 생기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소통이 안 되어 그런 건지 많이 고민했다. 결국 회사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하지 않았고 대신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자신감을 조금 되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컴퓨터학원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가르쳐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다. 그 친구를 가르치다 보니 친구가 진도를 나갈 때마다 보람이 있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끝내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지금은 강사 활동을 하는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 오기 전 꿈꿨던 것과 다르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모습 볼 때면 행복하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 일들을 거치면서 한국에서 진정한 내 꿈을 찾을 수 있었다.



시치미를 떼다

어떤 일을 해놓고도 모르는 척, 아닌 척할 때 하는 말이다. 비슷한 속담으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이 있다. 시치미는 매(조류)의 공지깃에 매다는 일종의 이름표를 뜻하는데, 매의 이름과 종류, 나이를 비롯해 주인 이름 등을 기록한 것이다.

매를 길들여 사냥에 이용하는 매사냥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고려시대에 왕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즐겼을 만큼 유행하던 사냥법이었다. 시치미는 공들여 훈련시킨 매가 바뀌거나 훔쳐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인 있는 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매단 것이었다. 사냥 중인 매가 홀로 떨어져 있거나 주인 잃은 매의 시치미를 확인하면 주인이 있는 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간혹 욕심 많은 사람이 매 공지에 달린 시치미를 떼어버리고 자기 매인 것처럼 우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의 매인 줄 알면서도 시치미를 떼고 아닌 척한다는 의미에서 '시치미를 떼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말에는 '발이 넓다', '얼굴이 두껍다', '간이 크다' 등 흥미로운 관용어가 많다. 평소 많이 들어보고 의미도 알지만 어떤 이유로 그런 표현이 굳어졌는지 궁금했던 관용어의 유래를 살펴보자.



까마귀 고기를 먹다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린 상황 혹은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을 핀잔할 때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히 '까마귀'와 '까먹다'의 발음이 유사한 데서 이르게 되었다는 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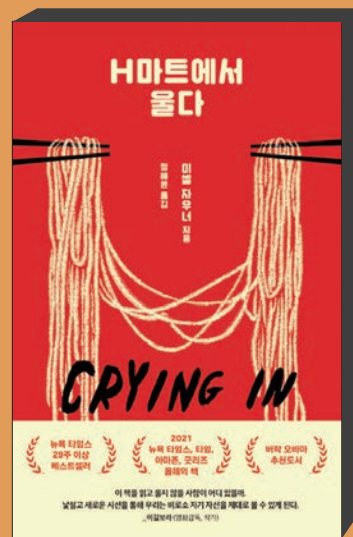
두 번째 설은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까마귀가 염라대왕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말고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느라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염라대왕에게 혼이 날 것을 두려워한 까마귀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인간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까마귀가 참지 못하고 고기를 먹는 바람에 일을 그르친 데서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까마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문화권에서 흉조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먹이를 먹을 때 도구를 사용할 줄 알 정도로 매우 영리하고 기억력도 좋다. 훈련받은 까마귀의 지능은 6~7세 아이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뭔가 잊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사람이 아닌 까마귀에게 실렐었던 셈이다.



공통의 언어로 나누는 대화

본래 살던 곳을 떠나 이국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과 정체성을 담은 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이산 문학)이라고 한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어느 곳에서 태어나 자랐든 결국 누구나 공감과 애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애뜻하게 정체성의 여로를 좇는 한국인·한국계 작가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만나본다.



미셸 자우너 저
문학동네

H마트에서 울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인디 팝 밴드 재패니즈 브렉퍼스트의 보컬리스트의 자전적인 경험담이 담긴 에세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추억하고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음식을 매개로 펼쳐진다. 십대 시절 정체성 혼란을 겪던 저자는 엄하고 잔소리 많으며 예술가의 꿈까지 반대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 시간이 지나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도 잠시 어머니는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다.

무뚝뚝했던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다. 저자에게 음식이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어머니 그 자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자는 한국 음식을 취급하는 H마트를 찾아 어머니가 해주셨던 한국 음식의 추억을 되새기고 한국 음식을 만들며 위안을 얻는다. 슬픔에서 회복하려는 저자의 건강한 삶의 태도와 더불어 음식, 특히 한식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아마추어 뮤지션이던 저자가 한 명의 예술가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독특한 울림을 준다.

“이제 전화를 걸어, 우리가 사 먹던 김이 어디 거였냐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전히 한국인이긴 할까?”

파친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지난해 미국에서 동명의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1, 2권으로 나뉜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1989년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 4대에 걸친 재일조선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1910년대 부산에서 태어난 여인이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가고, 여인의 가족들은 이방인이라는 편견과 차별 속에서 타지에 힘겹게 뿌리내린다. 제목의 파친코는 주인공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제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생존을 위해 택했던 사업 수단이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30년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조사와 인터뷰, 집필을 거쳐 세상에 내놓은 이 소설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뼈대로 하지만 역사라는 운명에 휘말려야만 했던 사람들, 타향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가족, 사랑, 돈 등 인생의 보편적인 문제들을 다뤄 세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공감을 자아내며, 속도감 있는 전개가 몰입감을 높인다.

“인생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대하는 파친코 게임과 같다고 생각했다.”



이민진 저
인플루엔셜



이금이 저
창비

알로하, 나의 엄마들

백여 년 전 미국 하와이에서 사탕수수과 파인애플 농장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1902년 미국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 땅을 밟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독신 남성들이었는데, 천여 명의 한인 여성들이 이들과 결혼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갔다. 이 여성들은 서로 사진으로만 보고 결혼했다고 해서 사진 신부라고 불렸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사진신부가 되어 하와이행 이민선에 오른 세 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청소년 소설이다. 사진신부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고향과 가족을 떠났지만 그곳도 천국은 아니었다. 책 속 세 명의 여인들은 여러 어려움과 맞서며 낯설고 척박한 환경에 적응해간다. 긴 세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연대하는 여인들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된다. 제목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뜻밖의 결말은 감동을 선사하며, 백 년 전 한인 이민 역사가 시작된 하와이의 풍경은 마치 실제로 들여다본 듯 생생하다.

“함께 조선을 떠나온 자신들은 아프게, 기쁘게, 뜨겁게 파도를 넘어서며 살아갈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미리 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공식 페이스북·유튜브·카카오톡에서 본부와
출입국·외국인 정책 소식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1

2023년 3월
출입국 주요 소식

3월 출입국 주요 소식



유럽 주요국 방문 23.3.7~3.15

한동훈 장관은 오랜 기간 다양한 이민·이주 정책의 파도
를 겪은 유럽 국가들과 이민·이주·국경관리 관련 정보
및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원활한 소통장구를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유럽 3개
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민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유럽 3개국 방문 외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구성원



소중한 이웃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이민자들과 함
께 만드는 '상생하는 대한민국'.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
울여 봅니다.



@immigration.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진심이 담긴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의 칭찬 대상자가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개한다.

**친절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 칭찬합니다 ★

외국인 민원인과 함께 방문했을 때, 서툰 한국어로 궁
금한 사항을 묻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여훈민 담당자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선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담당자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OO 씨

"체류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훈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칭찬을 받아
부끄럽고 얼떨떨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여훈민 주무관

**꼼꼼하고 친절하
안내에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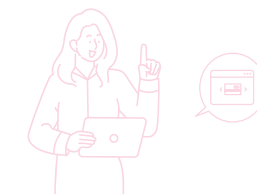


★ 칭찬합니다 ★

관련 법도 많이 바뀌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
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다루는 업무량이 많
을 텐데 박수진 담당자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사
했습니다.

백OO 씨

"국적 업무 담당자 박수진입니다.
민원인의 국적상실신고 실수를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본부에서도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게 돼 뿌듯합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박수진 주무관

공존 공감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pring
Vol.63



EVENT #1

독자 의견

2023년 <공존> 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19일(금)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뚜레쥬르 교환권(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3년 5월 23일(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춰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Q. 인천시(인천국제공항 제외)·경기 김포시·부천시의 출입국 업무를 관할하며 인천항의 국경 관리에도 힘쓰는 출입국·외국인청은 어디일까요?

- 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②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③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④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정답 마감 2023년 5월 19일(금)
당첨자 발표 2023년 5월 23일(화) 당첨자 개별 통보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제2회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대회 일정

서류제출	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시상식
4.24.(월)~ 6.23.(금)	7.5.(수)~ 7.6.(목)	7.20.(목)	8월 중
참가신청서 등 접수	평가결과 개별통보	평가결과 개별통보	훈격 및 상금 수여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 부문

이민행정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

※ 법무부 공공데이터(moj.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 등재된 이민행정 공공데이터 활용(기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등 결합 활용 가능)

참가 자격

이민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신청 방법

- ①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www.data.go.kr/suc/startup.do) →
- ② 기관별 예선 접수 방법 등 확인 → ③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 ④ 신청서류 제출(immibigdata@korea.kr)

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보

시상 및 포상

구분	훈격	인원	상금	비고
최우수상	법무부장관상	1팀	200만원	통합본선 추천
우수상	법무부장관상	1팀	100만원	-
장려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팀	50만원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경우 입상 취소 가능